

▶ 달러/원 주간 전망

• 국내외 통화정책 신호 확인..달러·원화 방향성 뚜렷해질까

서울, 8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하며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일지 주목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40-1370원이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와 경기 연착륙 기대가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저가 매수심리를 부추기는 동시에 연준의 '빅컷' 전망을 약화시키면서 금리와 달러의 상승 모멘텀은 둔화됐다. 물론 연준의 통화완화 경로에 대한 전망은 유지 중이다.

주중에 나오는 제조업·서비스업 PMI 등 경제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이어지겠지만 이보다는 7월 연준 정책회의록을 통해 정책 스탠스를 한번 살펴본 이후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물가 경로가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둔화 추세가 확인된 이후 달러지수가 8개월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던 만큼 이제는 달러 약세 재료에 시장이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를 열어둬야 할 듯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첫 날인 23일(한국시간 오후 11시)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통상 잭슨홀 이벤트를 통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유의미한 신호가 나왔던 터라 시장참가자들은 초점은 모두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 신호가 나온다면 리스크 온 스위치는 보다 강하게 켜질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와 달러의 방향과 움직임 폭을 살펴야겠다.

달러/원 환율은 증시 회복에 발맞춰 상단이 무거워졌다. 물론 달러의 온전한 하락세가 확인돼야하지만 상승압력은 이전보다 확실히 둔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중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주목된다. 여타 다른 나라처럼 물가 둔화 추세는 확인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쭉거리면서 금리인하 정책결정에 부담이 커진게 사실이다.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9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만약 다소 매파적인 금통위가 확인될 경우 원화 강제 시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20일 삼성전자 분기 배당에 따른 역송금 수요가 잠시 수급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한편, 주초 중국은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국내외 통화정책 당국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한 주다. 글로벌 달러를 비롯해 원화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질지 주목된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잭슨홀에 모여 연례회의를 열고, 미국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며,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에너지 시장은 요동치는 한편,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 잭슨홀 미팅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목요일부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여 통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례회의를 가진다. 올해는 작년의 인플레이션 주제에서 벗어나 노동 시장이 초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통화정책 회의 전 메시지를 미세 조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개월간 금리를 유지한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인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 엇갈리는 PMI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또 다른 퍼즐 조각이다. 기업 활동은 둔화되지만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실시간 단면을 제공하는 구매자관리자지수(PMI)는 대부분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7월 PMI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를 시사해 중앙은행이 곤경에 처한 이유를 보여줬다.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약화된 한편 독일 지표는 예상외로 부진해 유럽의 경제 강국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선진국 제조업체 투입가격은 18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향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것이다. 7월의 부진한 PMI 추세가 반복된다면 통화완화 정도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 BOJ 총재 국회 출석

일본은행(BOJ)은 최고 비둘기파에서 초매파로 급선회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암시함에 따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는 1987년 악명 높은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는 23일 정치인들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를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거시경제 지표는 소비 회복에 따라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반등을 보이는 등 적어도 BOJ편에 서있다.

○ 美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출마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며 미국 대선 레이스는 다시 뜨겁게 돌아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해리스는 민주당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면서 11월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일부 베팅 시장에서도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월요일에 시작하는 4일 간의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의 유명 인사들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한 경쟁 속 투자자들은 해리스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해리스 후보는 연준의 독립성을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는 대통령이 연준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공화당 후보이자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견해와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 지정학 긴장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위험 요인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밀고 당기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러한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동 분쟁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우려는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수요 우려는 유가 상승을 다소 제한했다.

한편 유럽 도매가스 가격은 중동 지역 우려 증폭 속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가스가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는 러시아 수르자 인근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러시아 가스프롬과의 5년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 가스 수송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착륙 희망에 다시 오르는 美 증시..잭슨홀 파일 연설 주목

뉴욕, 8월19일 (로이터) -

이달 초 극심한 매도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고무적인 지표들로 완화된 가운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S&P500지수는 2년여 만의 최대 3일 낙폭을 기록한 지난 5일 이후 6% 이상 반등했다. 월가의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4년래 최고치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내려 뚜렷하게 진정됐다.

지난주 발표된 소매판매, 물가지표는 월초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로 촉발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러한 우호적인 데이터는 빅테크 주식부터 7월에 가속화된 중소형주에 대한 최근 베팅에 이르기까지 올해 효과 있었던 많은 거래를 하고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고 있다.

에드워드 존슨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모나 마하잔은 "진정한 성장 공포가 찾아왔었다"면서 "그 이후의 경제지표는 실제로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2024년 최대 수혜주 중 일부는 지난 5일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 NVDA.O는 20% 이상 반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14% 이상 상승했다. 7월에 강세를 보였던 소형주 역시 최근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러셀 2000지수.RUT는 5% 가까이 상승했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9월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는 베팅을 줄이고 있다.

CME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기준 연준 기준금리에 연동된 선물은 9월 연준 50bp 인하 가능성을 25%로 반영했는데 이는 지난 5일 약 85%에서 하락한 수치다. 한편 25bp 인하 확률은 75 %로, 연준이 9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에 맞았다.

플란테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짐 베어드는 "경착륙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모멘텀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많다"고 말했다. 연준 정책 계획은 이번 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 더 명확해질 수 있다.

BNP 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들은 15일 메모에서 "파일 연설의 핵심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S&P500 지수는 16% 이상 상승했고, 7월 기록한 사상 최고 종가에서 약 2% 이내다. 에드워드 존슨의 마하잔은 연착륙 시나리오와 금리 인하가 올해 내내 지수 상승을 주도한 소수의 대형주 대신 더 많은 주식이 시장 랠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예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시장 상승을 이끈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4년 말 S&P500 지수를 6,000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를 지배했던 AI 내러티브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표치는 15일 S&P500 증가 대비 약 8% 상승한 수준이다.

최근 경제지표는 안심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연중 가장 변동성이 큰 시기인 9월로 향하는데 있어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엔비디아 실적과 내달 6일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엘피엘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제 문제는 연착륙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있는 현 시점에서 다음 고용보고서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할지다"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8월19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8월19일(월)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12:00)

8월20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8월21일(수)

- ⊙ 관세청: 8월1-20일 수출입
- ⊙ 한국은행: 20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2024년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4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한 일본대사 접견 (16:30)

8월22일(목)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8월) (13:30)
- ⊙ 기획재정부: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8월23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1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8월 12-19 일		중국	FDI (YTD)	7월		-29.10%
8월19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6월	1.1%	-3.2%
8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8월		3.35%
8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8월		3.85%
8월20일	17:00	유로 존	경상수지 NSA, EUR	6월		9.60B
8월20일	18:00	유로 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 치 MM	7월	0.0%	0.2%
8월21일	08:50	일본	수출 YY	7월	11.4%	5.4%
8월21일	08:50	일본	수입 YY	7월	14.9%	3.2%
8월2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16 일 주간		251.3
8월2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 정치 SA	8월		49.1
8월22일	17:00	유로 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46.0	45.8
8월2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12 일 주간	230k	227k
8월22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7월		0.05
8월22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49.5	49.6
8월22일	22:45	미국	S&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8월	54.0	55.0
8월22일	23: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8월	-12.6	-13.0
8월22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7월	3.92M	3.89M
8월23일	08:30	일본	CPI MM NSA	7월		0.1%
8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7월		1.396M
8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7월	0.629M	0.617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19일 (월)

-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최 여름 워크숍 개회사 (오후 10시15분)

8월20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포럼 참석 (21일 오전 2시35분)

8월21일 (목)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30-31일 회의 의사록 공개 (22일 오전 3시)

8월22일 (금)

- ⊙ 2024 잭슨홀 심포지엄 (~24일까지)

8월23일 (금)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2024 잭슨홀 심포지엄서 연설 (오후 11시)
- ⊙ 휴장국가: 필리핀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가자 휴전 만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지연시킬 수 있다 - 이란 관리들

두바이/베이루트, 8월14일 (로이터) -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회담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성사되어야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란의 고위 관리 3 명이 밝혔다.

이란은 지난달 말 하니예 살해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개입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이스라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군함과 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인 이란 안보 고위 관리는 가자 회담이 실패하거나 이스라엘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란이 헤즈볼라 등 동맹들과 함께 직접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회담이 얼마나 더 진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하니예와 헤즈볼라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의 살해 이후 중동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서 이란이 최근 며칠 동안 서방 국가 및 미국과 보복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치열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긴장을 완화하도록 이란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하마스가 참석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번 주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준 9월 금리 인하 지지하는 관계자 늘었다

8월16일 (로이터)-

견조한 경제지표로 금융 시장이 연방준비제도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베팅을 더 축소한 가운데 두 명의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다음 달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과거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는 것을 다른 많은 동료들보다 더 경계했다.

무살렘 총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했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리스크의 균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적당히 제약적인 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가 여전히 "매우 좋다"고 강조하고 최근 실업률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4.3%로 상승한 이유 중 하나로 노동 공급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을 지적했다.

한편 보스틱 총재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4분기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달라진 것이다.

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실업률이 저점에서 상당히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4분기 이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신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발언에서 보스틱 총재는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경우 0.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MSCI 리뷰 결과 한국 비중 축소..9천억원 규모 자금 유출 전망

서울, 8월13일 (로이터) -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8월 리뷰 결과 리밸런싱일 당일 9천억원 상당의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시장전문가들은 진단했다.

MSCI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8월 정기변경 결과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이 MSCI한국지수에 새로 편입됐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제외됐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MSCI 신흥지수 내 한국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리밸런싱일에 한국 물에 대한 매도세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리밸런싱 적용 후 신흥국지수 내 인도 비중(+0.45%)은 지속 증가한 반면 한국 비중은 감소(-0.16%)했다면서 리밸런싱일 부근에 한국물 9천억 상당의 매도 수요를 예상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9525억원 규모 자금 유출을 예상하면서 한국물 비중 축소에 따른 리밸런싱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중국도 0.43%p 감소하며 지수 내 비중 축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일은 이달 30일이고, 지수 변경 유효일은 9월 2일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